하이(Hi) 틴(Teen) 공부합시다

'로비스트'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의혹·스캔들 초점

최근 재벌의 비자금 조성이 이슈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로비 또는 로비스트 존재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국내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로비스트의 역할 등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로비스트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한·미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박동선 로비사건, 지난 1978년 4월4일 박동선씨가 미국 하원윤리위에서의 공개증언에 앞서 변호사인 윌리엄 헌들리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왼쪽). 아브라모프가 최근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1 로비스트란 ?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회나 정치권 등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대표로서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비(lobby)란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와 계약을 통해 고용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예를 들면 로비스트들은 "○○법률안을 통과시켜달라. 그럼 우리 단체가 다음 선거에서 당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식을 통해 상대를 설득합니다.

흔히 '로비'라고 하면 대개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낀 나머지 음지에서 일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할 정도로 공식적인 직업입니다.

1995년 '로비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 등 활동 사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로비스트의 유래

영국 국회의사당은 3만㎡의 부지에 1천100여개의 방이 있으며, 복도의 총 길이만 3.2㎞에 이릅니다. 의원 사무실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면담은 오직 로비에서만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로비스트'는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비는 특수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대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로비스트는 1830년께 미국의 '연방의회나 주의회 로비에서 서성대는 사람'을 일컫는 데서 왔습니다.

최초의 로비는 1800년대 초 미국 '필라델피아 전국산업진흥회'가 언론인들을 고용해 미합중국은행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활동한 것을 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비스트라는 용어가 알려진 것은 '린다 김'을 통해서입니다.

린다 김은 1995~1997년 미국에서 무기 중개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국방부의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2급 군사비밀 6건을 빼낸 혐의로 2000년 4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로비스트와 브로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원래 브로커는 상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험중개인, 부동산중개인, 통관중개인, 증권중개인 등이 대표적인 브로커들입니다. 중개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은 중개회사(Brokerage)라고 부르며 증권회사가 흔히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브로커가 사기성이 있는 중개인 정도의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비리 사건에는 브로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 등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권력자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이권을 따내거나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이권 중개인입니다.

브로커에 대한 인식이 나쁜 이유는 뇌물 때문입니다. 즉 돈을 주고 대가를 받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뇌물의 종류는 반드시 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나 자녀의 대학입학 등도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로비의 경우에도 만약 돈이 오간다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로비를 한다'는 것은 돈이나 이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득을 통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이익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로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비 자체에 대해 시각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항상 돈이 오가는 등 뒷말이 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로비활동중에 돈이 오가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로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논리나 이론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라고 하고,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을 '브로커'로 보면 됩니다.

4 로비스트 혹은 브로커에 의한 비리의 해결책은?

로비스트는 대개 어떤 특정한 의회 법안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군사·경제·사회·과학·환경 등 세상의 모든 분야가 이익집단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로비는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비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의 로비스트가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성적인 로비 활동은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하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현안을 두고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게이트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다 로비스트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부패 감시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로비를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은 로비스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음성적인 로비와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를 양지로 끌어내 일정한 테두리를 만들고 이를 벗어날 경우 엄하게 처벌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청렴위는 올 상반기 중 로비스트의 자격이나 로비 행위의 대상, 주체 등을 공청회를 통해 확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취재반

하이 Hi 틴 공부합시다

로비스트는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회나 정치권을 상대로 교섭하는 사람

■ 세계를 뒤흔든 로비스트사건

美 '로비의 제왕' 아브라모프 외교문제 비화된 '박동선사건'

◇아브라모프 로비 스캔들

미국 '로비의 제왕' 잭 아브라모프가 각종 뇌물사건과 탈세, 사기 등으로 혐의로 기소됨에따라 로비 과정에서 수십명의 의원들에게 호화여행과 골프 외유·향응 접대·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불법 사실이 드러나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이다.

올해 초 터진 미국의 아브라모프 로비 스캔들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원들만 줄잡아 40여명에 이르러 1970년대 중반 미 정가를 뒤흔들었던 박동선 씨의 불법로비 사건 '코리안 게이트' 이후 30년 만의 최대 로비 스캔들로 불리고 있다.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는 1월 5일까지 이틀간 검찰과 플리바겐(형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해 크게 4가지 분야의 죄를 인정했다. ▲루이지애나주 인디언 부족들로부터 도박허가 로비명목으로 8천만달러를 받았는데 사실은 사기였다는 점 ▲로비자금을 자선단체를 통해 받고 개인적으로 2천500만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탈세를 한 점 ▲여러 의원·보좌진에게 입법활동 대가로 여행, 골프 외유,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점 ▲플로리다주 카지노 유람선 매입을 위한 2천300만달러 허위송금증서 작성 등이다. 아브라모프는 이를 통해 최대 30년 이상이 될 수 있었던 형량을 10년 정도로 줄였다.

◇박동선 사건

1976년 박동선이 미국 의회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시작된 한·미 간의 외교마찰사건이다. 흔히 코리아게이트사건이라고도 한다.

박동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박정희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미국 의원들에게 뿌렸으며, 자금을 받은 미 의원들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박동선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측이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을 문제로 삼아 송환을 거부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회담을 거쳐 1977년 12월 31일 한·미 양국은 박동선이 미국 정부로부터 전면사면권을 받는 조건으로 증언에 응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78년 2월 23일 미국으로 건너간 박동선은 미국 상·하원 윤리위원회 증언에서 미 의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얻은 한국에 대한 쌀판매권으로 약 920만 달러를 벌어 이 중 800만 달러를 로비활동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청문회에서 그는 전 하원의원 해너 등 32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약 85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했으며,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R.M.닉슨에게도 2만5천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법무성은 박동선사건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너와 3명의 민주당 의원만 징계하였다. 그 후 미국 의회가 미국 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김동조의 증언을 요구함으로써 한·미 간에 새로운 갈등이 유발됐으나, 막후절충을 벌여 1978년 9월 19일 김동조가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의 서면질문에 답변서를 보내고, 10월 16일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